

맞닿아 있으므로 사람들이 편안치 못하다고 여기고 경(京)을 폐지하여 주(州)로 삼고 도독(都督)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또 실직(悉直)을 북진(北鎭)으로 삼았다.

사료 3-1에는 639년(선덕왕 8) 하슬라주를 북소경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 하슬라가 주, 즉 정의 소재지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달홀에 있던 것이 어느 시점에 하슬라로 옮겨온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 하슬라에 북소경을 설치하면서 정의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혹시 그냥 하슬라를 하슬라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면, 정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북소경이 두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때의 소경은 세 번째로 설치된 것으로 주로 왕경인들이 나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사료 3-2에 의하면 655년(태종무열왕 2) 고구려가 백제, 말갈군과 함께 신라의 북쪽 변경을 공격하여 33성을 탈취했다고 한다. 이때의 말갈은 앞에서 이야기한 ‘위말갈(僞靺鞨)’이 아니라 중국 역사책에 기록된 것과 같은 실제 말갈로 추정된다. 또 여기에서 북쪽 경계는 서북 경계보다는 동북 경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당시 신라의 서북 경계는 임진강 선이었는데 그 뒤에도 이러한 경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동북 경계였다고 하면 백제군이 실제로 이 지역을 함께 공격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고구려와 말갈이 신라의 동북에서 33성을 탈취했다면 신라의 동북 경계가 크게 남하했을 것이다.

사료 3-3에서 북소경을 폐지하고 하슬라에 정을 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 직관지에서는 이때 실직의 정을 하슬라로 옮긴 것이라고 하였지만, 당시 정황으로 보았을 때 정 역시 전방으로부터 후퇴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실직, 즉 삼척을 북진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당시 신라의 지방 제도에서 진(鎭)이라는 단위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진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북소경을 실직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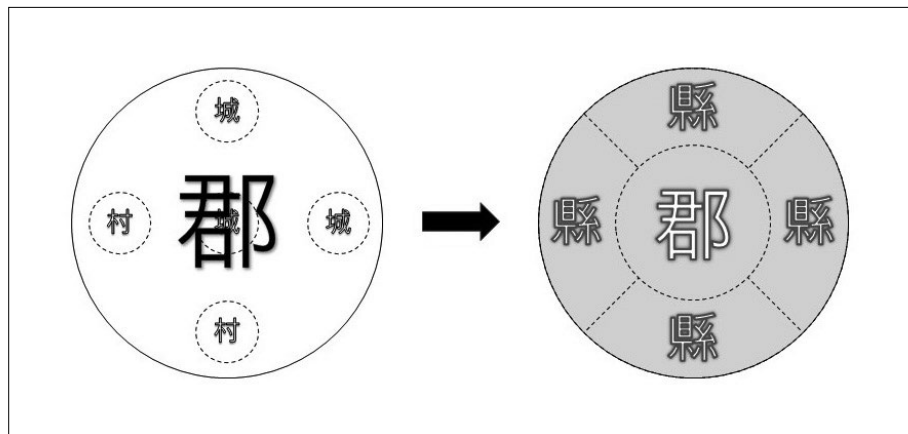
동해안 방면의 광역 행정구역과 하슬라정은 통일 후까지 지속된다. 그것이 곧 하슬라주(何瑟羅州)와 그 주치가 되는 것이다. 다만 동해안에서 안변 지역은 춘천에 중심을 둔 우수주(牛首州)로 편제되는데, 그것은 안변 지역의 회복이 우수정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제3절 통일 신라 시기

당(唐)과 동맹한 신라는 660년 백제를 공격해 멸망시키고 668년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나당 연합군의 백제 공격은 울진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지만, 668년에는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668년 6월 문무왕은 고구려를 공격하는 장수들을 임명했는데, 파

진찬 선광, 아찬 장순, 순장을 하서주 행군 총관으로 삼았다.⁸² 이들은 하서정(河西停), 즉 하슬라정을 근간으로 하슬라주 지역의 병력을 동원하여 평양 방면으로 진군했을 것이며, 여기에는 울진 지역의 민들도 다수 편입되었을 것이다. 나당 전쟁 시기에는 비열홀(比列忽), 즉 안변 지역을 둘러싸고 당-말갈군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지만, 울진 지역은 대체로 후방에 속해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신문왕 대에 이르러 군현제가 정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기존의 군·성·촌의 제도가 군현제로 개편된 것인데, 군 내의 중심 거점이 군치가 되고 나머지 거점들이 현이 되는 방식이었다. 울진 지역의 예를 들면 우진야가 군치가 되고 파차가 소속 현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을 중심으로 한 광역 행정구역이 9개의 주(州)로 정비되었다. 이때 우진야군은 하슬라주에 속하게 되었다.



<그림 65> 군·성·촌제에서 군현제로의 전환

경덕왕 대에는 군현명을 한식(漢式), 즉 중국식 지명으로 개편하였는데,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바로 이때의 자료, 즉 일종의 신규 대조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것을 직접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료 4. 울진군(蔚珍郡)은 본래 고구려(高句麗) 우진야현(于珍也縣)이었는데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까지 그대로 따른다. 거느리는 영현(領縣)은 1개이다.

82.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상 8년(668) 6월

二十一日, 以大角干金庾信爲大幢大摠管, 角干金仁問·欽純·天存·文忠·迦浪眞福·波珍浪智鏡·大阿浪良圖·愷元·欽突爲大幢摠管, 伊浪陳純·一作春·竹旨爲京停摠管, 伊浪品日·迦浪文訓·大阿浪天品爲貴幢摠管, 伊浪仁泰爲卑列道摠管, 迦浪軍官·大阿浪都儒·阿浪龍長爲漢城州行軍摠管, 迦浪崇信·大阿浪文穎·阿浪福世爲卑列城州行軍摠管, 波珍浪宣光·阿浪長順·純長爲河西州行軍摠管, 波珍浪宜福·阿浪天光爲誓幢摠管, 阿浪日原·興元爲屬衿幢摠管

해곡[서(西)라고도 쓴다.]현(海曲縣)은 본래 고구려(高句麗) 파차현(波且縣)이었는데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알 수 없다.

신라 때에는 울진군과 그 영현인 해곡현이 있었고, 평해는 아직 행정구역으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평해가 행정구역으로 존재한 것은 고려 이후이며, 그 전에는 ‘근을어’라는 지명만이 존재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신라 울진군과 해곡현의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각각의 연혁을 확인하고, 그 중심지의 위치를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야 한다. 먼저 울진군의 경우 고려 때 명칭의 변화는 없고 현(縣)으로 강등시켜 현령(縣令)을 두었다고 했는데,⁸³ 이것은 현령을 파견해서 주현(主縣)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당시 울진읍성의 존재가 나타나 있는데,⁸⁴ 이것은 고성리 고산성에 해당한다.⁸⁵ 또 같은 책 고적조에는 고을 동쪽 5리에 고읍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⁸⁶ 이것은 연지리 고현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⁸⁷ 여기까지가 (조선 전기의) 문헌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중심지의 위치이다. 대체로 고려 말까지는 해안의 고현성이 중심지였다는 것까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라 울진군의 위치도 이 부근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일제강점기 『울진군지』(1939)의 기록을 보면, 그 전에 산내성, 장산성 등이 있었고 특히 신라 때에는 장산성이 중심이었다는 전승이 있다.⁸⁸ 만약 이것을 신빙할 수 있다면 신라 때 울진군의 치소는 현재 울진읍보다는 죽변면 후정리 부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앞에서 검토한 고분군 중에서는 오히려 덕천리고분군이 중심 고분군으로서 울진군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해곡현은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이미 미상인 상태가 되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적조」에도 그 위치가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조선 말 김정호는 이것을 울진 읍치 남쪽 10리의 덕신역(德新驛)에 비정한 바 있다.⁸⁹ 김정호의 이러한 견해는 현재도 학계에서

83. 『고려사』권58, 지12 지리3 동계 울진현

蔚珍縣, 本高句麗于珍也縣[一云古弓伊郡], 新羅景德王, 改今名, 爲郡. 高麗, 降爲縣, 置令

84. 『신증동국여지승람』권45, 강원도 울진현 성곽

읍성 둘로 쌓았으며 둘레가 2천 5백 66척, 높이 9척이며, 성안에 우물 네 곳이 있다.

85. 대구대학교 박물관, 1998, 『울진군 성지유적 지표조사보고서』, 106~111쪽

86. 『신증동국여지승람』권45, 강원도 울진현 고적

고읍성(古邑城) 고을 동쪽 5리에 있다. 흙으로 쌓았으며 주위가 1천 2백 10척인데, 지금은 폐지되었다.

87. ‘대구대학교 박물관, 1998, 앞 책’에서는 이것을 읍내리 고읍성에 비정했지만(92~96쪽), 방향과 거리를 보았을 때 연지리 고현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84~87쪽).

88. 南錫和 編, 1939, 『蔚珍郡誌』, 울진읍 성곽 장산성

“在縣北 後亭里 長坪하니 新羅朝에 築爲城邑이러니 今廢라”

89. 『대동지지』권16, 울진 고읍

“海曲, 南三十里, 德新驛地. 本波且, 一云波豊. 新羅景德王十六年, 改海曲爲蔚珍郡領縣. 高麗初仍屬”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⁹⁰ 하지만 해곡현의 읍치가 덕신역 자리에 있었다는 김정호의 주장에는 별다른 실증 근거가 없다. 일단 덕신리[덕신역의 옛터]는 해곡현의 읍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거의 갖추지 못했다. 고을의 읍치가 들어설 만한 입지 공간이 넉넉하지 못하고, 산성과 같은 읍치 배후의 성곽 유적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덕신리 주변에서는 해곡현 읍치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는 덕신리 고분군, 매화리 고분군, 오산리 고분군 등의 고분군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 고분군들은 통일신라 해곡현과 관련성보다는, 신라가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영역을 확장하던 5~6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 고분군 중에서 덕신리 고분군이 가장 규모가 크고 유물도 많이 출토되었다.⁹¹ 그러나 덕신리 고분군은 삼국통일 이전 신라의 영역 확장 시기에 만들어졌던 고분이다. 덕신리 일대에서 통일신라 때나 그 이후의 해곡현 읍치의 흔적으로 보이는 유적이거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덕신리 지역에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덕신역이 설치되어, 교통상의 거점으로 기능하였다. 아마도 덕신역은 통일신라 때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을 간 거리 간격의 측면에서 볼 때도, 덕신리에 해곡현의 읍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덕신리에서 북쪽으로 울진읍[신라 울진군 읍치]까지의 거리는 약 14km, 남쪽으로 평해읍[고려 평해군 읍치]까지의 거리는 약 20km이다. 대체로 덕신리는 울진읍과 평해읍의 중간 지점에 해당한다. 그런데 통일신라 때는 옛 평해군 지역에 별도의 고을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덕신리에 해곡현이 있었다고 한다면, 동해안을 따라 해곡현의 북쪽에는 울진군이, 남쪽에는 평해 남쪽의 유린군(有隣郡)⁹²[현 경북 영덕군 영해면 일대]이 있었던 셈이 된다.

그런데 덕신리에서 북쪽의 울진까지 거리는 약 14km에 지나지 않지만, 남쪽의 유린까지는 40km가 넘는다. 즉 덕신리에 해곡현이 있었다고 한다면, 북쪽의 울진군과는 거리가 상당히 가깝고 남쪽의 유린군과는 꽤 먼 거리를 두고 위치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덕신리와 영해 사이에 험준한 산맥과 같은 뚜렷한 자연 장벽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고을 간의 배치 간격을 통해서 보아도, 울진읍 방면에 치우쳐 있는 덕신리는 해곡현의 중심지였다고 보기 어렵다.

후대의 소속 관계 측면에서도, 덕신리는 해곡현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덕신리에 있었던 덕신역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모두 평해군이 아니라 울진현 소속이었다.⁹³ 만일 덕신리에 해곡현의 중심지가 있었다면, 고려의 울진현 지역에는 신라 때의 울진군과 해곡현 등 2개의 고을 읍치가 있었고, 고려의 평해군 지역에는 신라 때의 고을 읍치가 없었던 셈이 된다. 위치상 신라 때에 고을이 설치되지 않았던 고려 평해군의 영역은 해곡현의 영역에

90. 노종국, 2001, 앞 논문, 168쪽; 정구복 외, 2012, 『역주 삼국사기』4 주석편(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91쪽

한편 심현용은 해곡현이 고려, 조선시대 평해군의 영역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심현용, 2016, 앞 논문, 280~281쪽).

91.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편, 2009, 『韓國考古學專門事典』古墳篇, 298~299쪽, 401쪽, 897쪽

92. 유린군은 고려시대에는 예주, 조선시대에는 영해로 이름이 바뀌었다.

93. 『고려사』권82, 지36 兵2 站驛 溟州道掌二十八; 『新增東國輿地勝覽』권45, 江原道 蔚珍縣 驛院

속했을 것이므로, 신라 해곡현은 고려 평해군보다 영역이 훨씬 더 넓었을 것이고, 신라 울진군은 고려 울진현보다 영역이 더 작았을 것이다. 통일신라 시대 현의 읍격이 군의 읍격보다 낮았음을 감안하면, 해곡현이 그렇게 넓게 편제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해곡현의 읍치가 덕신리에 있었다는 김정호의 주장은 실증 근거가 취약한 견해로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곡현의 읍치는 덕신리가 아니라 옛 평해 지역에 있었을 것이지만, 『삼국사기』 지리지나 『고려사』 지리지에서는 해곡현과 평해군을 별개의 지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해곡현의 폐지와 평해군의 신설이 서로 계승 관계로 서술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후삼국 시기의 격변 속에서 발생한 토착 지방 세력의 변동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평해군 지역에서 신라 해곡현의 읍치 자리로는 현 기성면 척산리 지역이 주목된다. 척산리 지역은 고려 평해군의 읍치가 있었던 오늘날 평해읍 평해리 지역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져 있다. 척산리에는 울진 기성읍성이라고 알려진 둘레 약 700m의 토축 성곽이 남아 있다.⁹⁴ 성곽의 일부는 얇은 구릉의 능선을 따라 조성되어 있는데, 내부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축조 연대와 사용 연대를 알기는 어렵다.

다만 기성읍성 인근에는 황보리 고분군이나 삼산리 고분군 등 삼국시대에 조성되었던 고분군이 남아 있어, 기성읍성 일대가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지역의 거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기성읍성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기성읍성과 해곡현의 관계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⁹⁵

이처럼 통일 신라 때 울진군의 치소는 현재의 죽변면, 해곡현의 치소는 기성면 정도에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당시 해곡현을 포함한 울진군의 영역은 평해군을 포함한 현재의 울진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중 울진군의 영역이 고려 울진현으로, 해곡현의 영역이 고려 평해군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신라 울진군은 금양군[金壤郡, 현 강원도 통천]에서 유린군[有隣郡, 현 경북 영덕 영해면] 해아현[海阿縣, 현 경북 포항 청하면]까지 동해안의 군과 태백산맥 서쪽의 나성군[奈城郡, 현 강원도 영월], 곡성군[曲城郡, 현 경북 안동 임하면]과 함께 현재의 강릉에 해당하는 명주[溟州]에 소속되어 있었다.⁹⁶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 강릉대도호부 인물 신라 김주원(金周元)조에 그가 선덕왕(재위 780~785) 사후의 왕위 계승 경쟁에서 원성왕이 되는 김경신에게 밀려 왕이 되지 못하고 명주로 물러가자 2년 후에 그를 명주군왕(溟州郡王)으로 봉하고

94.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편, 2011, 『韓國考古學專門事典』城郭·烽燧篇, 204~205쪽

95. 이상 해곡현의 위치 비정 부분은 「제6장 고려」의 필자인 정요근이 집필한 것을 전체적인 일관성과 독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 편집 과정에서 이 쪽으로 가져와 이 장의 필자인 박성현이 (대부분 그대로) 정리한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96. 참고로 당시 울진군의 북쪽에는 삼척군이 있었고 남쪽에는 유린군[有隣郡][현 영덕 영해]이 있었다. 서쪽으로는 곡성군[曲城郡][현 경북 안동 임해] 및 삭주 나령군[奈靈君][현 영주]과 접경했을 것이다.

명주 속현인 삼척, 근을어(斤乙於), 울진 등의 고을을 떼어서 식읍으로 삼게 했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후대의 기록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울진 지역이 명주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통일 신라 시기 울진군은 왕경인 경주에서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길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교통로를 따라서 설정된 광역 행정구역이 바로 하슬라주[또는 하서주], 즉 명주(溟州)이며, 더 나아가 이 교통로를 『삼국사기』 지리지 삼국유명미상지분(三國有名未詳地分)의 5통(通)⁹⁷ 중 하나에 비정하는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5통은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왕경에서 5문역(門驛)⁹⁸을 거쳐 전국 각 방면으로 향하는 교통로로 이해되고 있는데,⁹⁹ 동해안 방면의 도로는 동북 방향의 간문역(艮門驛)에서 출발하는 북해통(北海通)으로 간주되고 있다.¹⁰⁰ 또 이 길이 명주에 이르는 길이라는 점에서 명주로(溟州路)로 지칭하기도 하였다.¹⁰¹ 이 길은 명주를 거쳐 신라의 동북 경계인 정천군(井泉郡)에 이르렀으며, 여기에서 다시 발해의 남경 남해부(南京南海府)로 이어졌을 것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전하는 가탐(賈耽)[730~805]의 『고금군국지(古今郡國志)』에는 “신라 천정군(泉井郡)에서 (발해) 책성부(柵城府)[동경 용원부]에 이르기까지 무릇 39驛이 있다”¹⁰²고 되어 있다.

이 길이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모습은 『삼국유사』 기이편 수로부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료 5. 성덕왕(聖德王) 때 순정공(純貞公)이 강릉(江陵)[지금의 명주(溟州)]태수(太守)로 부임하는 길에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 곁에는 바위 봉우리가 병풍과 같이 바다를 둘러 있고, 높이가 천길이나 되고, 그 위에는 철쭉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공의 부인 수로(水路)가 그것을 보고 좌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저 꽃을 꺾어다 줄 사람은 없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종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곳입니다”라고 하면서 모두 사양하였다. 그 곁으로 한 늙은이가 암소를 끌고 지나가다가 부인의 말을 듣고 그 꽃을 꺾어와 또한 가사를 지어 바쳤다. 그 늙은이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다시 이틀 길을 가다가 또 임해정(臨海亭)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바다의 용이

97. 『삼국사기』권37, 잡지6 지리지 三國有名未詳地分

北海通. 鹽池通. 東海通. 海南通. 北徭通

98. 『삼국사기』권37, 잡지6 지리지 三國有名未詳地分

乾門驛. 坤門驛. 坎門驛. 艮門驛. 兌門驛

99. 井上秀雄, 1974 『新羅王畿の構成』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100. 盧重國, 1999, 앞 논문, 239쪽

101. 정요근, 2011, 「통일신라시기의 간선교통로」 『한국고대사연구』63, 한국고대사학회, 171쪽

102. 『삼국사기』권37, 잡지6 지리지

古今郡國志云, “... 自新羅泉井郡, 至柵城府, 凡三十九驛”

갑자기 부인을 끌고 바다로 들어가 버렸다. 공이 엎어지면서 땅을 쳐보아도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또 한 노인이 말하기를, “옛사람의 말에 여러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고 했으니, 이제 바닷속의 미물(傍生)인들 어찌 여러 사람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경내의 백성을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막대기로 언덕을 치면 부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공이 그 말을 따르니, 용이 부인을 받들고 바다에서 나와 바쳤다. ...¹⁰³

이는 성덕왕(재위 702~737) 때 김순정이 강릉태수, 아마도 하서주총관으로 부임할 때 부인인 수로와 관련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임해정을 강릉 경내로 보았을 때 그곳에서 이틀 정도 거리의 장소는 울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¹⁰⁴ 물론 그것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북해통 또는 명주로가 통일 신라 시대에 간선 교통로로서 빈번하게 이용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이 길은 통일 신라와 발해의 사행로(使行路)로도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라와 발해는 그다지 활발하게 교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발해에서 남경 남해 부에 이르는 길을 신라도(新羅道)라고 했다면¹⁰⁵ 양국의 사신의 다녀가는 일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통일 신라 때에는 울진을 지나는 교통로가 신라의 주요 간선 교통로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국제 교통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삼국유사』의 통일 신라 시기 기록 중에 울진 장천굴(掌天窟)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 울진 지역의 명소(名所), 성소(聖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탑상편(塔像篇)의 ‘대산오만진신(臺山五萬眞身)’조와 ‘명주 오대산 보길도태자 전기’조는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전하고 있다.¹⁰⁶ 일연이 신문왕으로 추정한 정신대왕(淨神大王)의 태자 보천[寶川, 보길도], 효명(孝明) 두 형제가 속세를 떠나 오대산에서 수련을 했는데, 나중에 동생인 효명이 즉위하고 보천은 계속 수련을 해서 만년에는 육신이 허공을 날아 유사강(流沙江) 밖 울진국(蔚珍國) 장천굴(掌天窟)에 이르러 굴의 신령에게 보살계를 주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대산 진여원(眞如院, 상원사)의 연기 설화로 생각되는데, 효소왕, 성덕왕대에 절의 개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장천굴에 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103. 『삼국유사』권2, 기이2 수로부인

聖德王代，純貞公赴江陵太守 今溟州行次海汀畫簾，傍有石嶂如屏臨海，高千丈，上有躑躅花盛開。公之夫人水路見之謂左右曰，“折花獻者其誰。”從者曰“非人跡所到。”皆辭不能。傍有老翁牽犂牛而過者，聞夫人言折其花，亦作歌詞獻之。其翁不知何許人也。便行二日程，又有臨海亭畫簾次，海龍忽攬夫人入海。公顛倒躑地計無所出。又有一老人告曰，“故人有言衆口鑠金，今海中傍生何不畏衆口乎。宜進界內民作歌唱之以杖打岸，則校勘 049可見夫人矣。”公從之，龍奉夫人出海獻之 …

104. 盧重國，1999, 앞 논문, 270쪽

105. 『신당서』권219, 열전144 복적 발해

龍原東南瀕海，日本道也。南海，新羅道也。鴨渚，朝貢道也。長嶺，營州道也。扶餘，契丹道也

106. 『삼국유사』권3, 탑상4 臺山五萬眞身, 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

『신증동국여지승람』 울진현 불우(佛宇) 성류사(聖留寺)조에는 성류사가 곧 성류굴(聖留窟)이며 옛날 이름은 탕천굴(撐天窟)이라고 되어 있다. 성류굴과 성류사에 대한 것은 고려 때 이곡(李穀)이 쓴 「동유기(東遊記)」(1349)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¹⁰⁷ 고려시대에 이미 성류굴 앞에 성류사가 있었다는 것인데, 보천이 굴의 신령에게 보살계를 주었다는 것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원래 성류굴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굴신의 존재로 보아 민간 신앙의 장소로도 기능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곳이 삼한 시기에 소도(蘇塗)와 같은 장소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¹⁰⁸ 그러던 것이 대체로 통일 신라 시기에 이르러 불교적인 장소로 변모했던 것이고, 그것이 전승에 굴의 신령이 보살계를 받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성류굴에서는 2015년 12월 입구 부분에서, 또 2019년 3월 제8광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암각 명문이 발견되어 보고되었다. 전자는 ‘계해년(癸亥年)’ 명으로 그 연대에 대해서는 543년(진흥왕 4)으로 보는 견해¹⁰⁹와 663년(문무왕 3)으로 보는 견해¹¹⁰가 제시되었다. 한편 2019년에 발견된 명문 중에는 경진년, 신유년, 갑진년, 정원(貞元) 14년(798), 병부사, 화랑과 승려의 이름, 향도 등과 함께 ‘진흥(眞興)’이 확인되었다.¹¹¹ 경진년에 진흥이 다녀갔다는 것인데, 이때 경진년은 진흥왕 21년(560)에 해당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진흥왕대부터 이 장소가 왕실 인사와 화랑들의 유오처(遊娛處)로 기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화랑들이 산수를 유람할 때 동해안 지역을 많이 찾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삼국유사』 답사편 미륵선화·미시랑·진자사조에는 최초로 국선(國仙)이 된 설원랑(薛原郎)을 기념하기 위해 명주에 비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¹¹² 또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동해안 지역 군현조에서는 화랑들이 다녀갔다고 하는 장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고성 삼일포, 강릉 한송정, 그리고 울진 월송정이 대표적인 곳이다.¹¹³ 화랑들은 울진에서 월송정과 함께 성류굴에 들러 탐험을 하고 이름을 새기기도 했다.

이처럼 통일 신라 시기에는 울진 지역의 전통적인 명소들이 국가적인 유오처로, 또 불교 성지로 새롭게 자리 잡았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라의 대·중·소 국가 제사 체계에서 소사(小祀)에 편입된 우진야군 악발[岳髮, 또는 髮岳]의 경우이다. 이러한 내

107. 『稼亭集』권5, 記 東遊記

현에서 남쪽으로 10리쯤 가니 성류사(聖留寺)가 나왔는데, 그 절은 석벽의 단애 아래 장천(長川)가에 위치하였다. 단애의 석벽이 1000척의 높이로 서 있고 그 석벽에 작은 동굴이 뚫려 있었는데, 그 동굴을 성류굴(聖留窟)이라고 불렀다.

108. 盧重國, 1999, 앞 논문, 277쪽

109. 박흥국·심현용, 2015 「울진 성류굴 입구 암벽에서 삼국시대 신라 명문 발견」 『울진문화』29, 울진문화원 ; 김재홍, 2019, 「신라 刻石 명문에 보이는 화랑과 서약」 『新羅史學報』45, 신라사학회

110. 李泳鎬, 2016, 「蔚珍 聖留窟 巖刻 銘文의 검토」 『목간과 문자』16, 한국목간학회

111. 심현용, 2019, 「울진 성류굴 제8광장 新羅 刻石文 발견 보고」 『목간과 문자』22, 한국목간학회

112. 『삼국유사』권3, 탑상4 弥勒仙花: 未尸郎·真慈師

113. 『신증동국여지승람』권45, 강원도 평해군 누정

월송정(越松亭) 고을 동쪽 7리에 있다. 푸른 소나무가 만 그루이고, 흰 모래는 눈 같다. 소나무 사이에는 재미도 다니지 않으며, 새들도 집을 짓지 않는다. 민간에서 전하여 오는 말이, “신라 때 신선 술랑(述郎) 등이 여기서 놀고 쉬었다.” 한다.

다만 월송정 정자는 고려시대에 처음 건립되었다.

용은 『삼국사기』 제사지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청해진(淸海鎭)이 들어있어 신라 하대(下代)의 자료로 추정하고 있다. 발악이 현재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것을 안일왕산에 비정한 견해¹¹⁴와 성류굴이 있는 성류산에 비정한 견해¹¹⁵가 있다. 발악의 경우에도 올진 지역에서 따로 제사를 지냈던 명산이었을 것이다. 신라 국가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이러한 장소도 국가 제사의 체계 속에 편입되었다.

박성현

114. 盧重國, 1999, 앞 논문, 274쪽

115. 심현용, 2019, 「진흥왕 명문 발견과 올진」 『新羅文字資料』 II, 국립경주박물관, 53쪽